본래사람, 옛사람, 새사람, 그럼 나는?

(골3:5~11)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1.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본래사람, 옛사람, 새사람, 그럼 나는?>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본래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그 셋 중에서 나는 누구냐?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본래사람입니까? 이랬다저랬다 하는 겁니까?
이거 한 번 우리가 좀 따져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돼지고기하면 맞는 궁합의 음식이 뭐 있습니까? 새우젓, 또 닭 하면 인삼, 그래서 삼계탕이 유명하잖아요? 또 복어는 미나리.
이런 식으로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의 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상극인 음식들이 있어요.
장어를 먹지 않습니까? 민물장어, 얼마나 민물장어가 좋습니까? 비싸지요.
그 민물장어를 먹고 복숭아를 먹으면 설사해 버립니다.
도토리묵, 아! 이거 요새 건강음식으로 아주 잘 애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먹는데, 이 도토리묵 먹고 감 드시면 심각한 변비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게 있지요 게, 대게,
아! 비싸요, 비싸고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 비싼 게를 먹고 감을 드시면 소화불량이나 식중독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상극인 음식의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요소들을, 각자 개별적으로 보면 다 좋은 것들인데, 그걸 조합을 시켜 놔버리면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에요.
사람 역시 이러한 조합의 방식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인격을 완전히 딴 판의 사람이 되게끔 하는 조합의 요소가 뭐냐?
세 가지에요, 세 가지, 그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본래사람, 옛사람,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조합을 시키느냐 조합방식에 따라서 완전히 죽을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완전히 복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저주덩어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요소지만 그걸 조합하는 방식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멸망의 존재로도 만들고 복덩어리로도 만들 수 있는 이 조합의 대상인 세 가지 요소가 뭐냐?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요소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육체.
누구에게나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 가지 요소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단지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합의 방식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면 이 조합방식에 따라서 본래사람과 옛사람과 새사람이 결정이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그래서 오늘은, 본래사람과 옛사람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눕니다.

본래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오리지널한 인간에 대한 그 본래의 계획을 따라서 지어진 인간, 그게 본래사람 아닙니까? 타락 전의 아담과 하와에요.

마음과 육체와 영이신 하나님이, 이 본래사람에서는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었는가?
그러니까 게와 감처럼 상극으로 조합이 되어 있었나, 닭과 인삼처럼 아주 상호보합의 관계로 조합이 되어 있었나, 이런 걸 알아본다는 겁니다.
아담이 흙으로 빚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딱! 깨어났을 때, 처음 만나게 되는 대상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이, 백설의 들판.
강릉에 눈이 2미터 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눈 속에 있어보지 않았으면 눈이 어떤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대단했어요.
그런 눈이 내린 사람 발자국 하나 없는 백설의 들판, 아담의 마음이 처음 그랬던 거예요, 깨어났을 때.
근데 그 백설의 마음에 첫 번째 대상이 영이신 하나님 이었습니다.
부모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고, 자녀도 물론 없고, 직업이라는 관념도 없고, 내가 뭐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내가 뭐 내 인생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내 인생을 꽃피우기 위해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꿔라, 꿈 꾼 대로 이루리라 뭐 이런 말도 없고, 어떤 말도 어떤 존재도, 백설의 들판 같은 아담의 마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영이신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백설의 들판 같은.
그러니까 아담은 완전히 snow white, 백설 공주의 원조에요, 원조.
마음이 백설이에요, 이 피부색깔이 백설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 조합이 이루어진 상태가 본래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백설의 들판 같은 마음에 하나님 처음으로 만나지고 조합을 이루었을 때에, 마음이라는 것이 느낌이 있게 만드셨는데, 그 느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손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뜨거워지고, 찬물에 집어넣으면 차다고 느끼듯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그 느낌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기쁨이라는 뜻의 단어에요, 기쁨의 동산, 에덴동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백설의 들판 같은 마음에 처음 만나서, 인간의 마음이 영이신 하나님과 조합을 이룸으로써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 이것이 인간창조의 근본목적이십니다.
'나 때문에 기뻐해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류역사상 첫 번째 단어에요, 첫 번째 단어.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인간 마음상태에 대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쁨이 첫 번째 단어라니까요, 기쁨이.
참! 기쁨이라는 단어가 대단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육체는 어떡하고 있었느냐, 하나님과 백설의 들판 같은 마음으로 조합을 이루어서 기쁨이 있는 가운데 이제 비로소, 육체를 통해서 에덴의 환경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납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어요.
하와를 만나서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 속에 들어 있는 마음의 상태는 그럼 어떤 거였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이신 하나님과 조합을 이룰 때는 기쁨이었는데, 그러면 육체를 통해서 하와와 에덴을 만날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흐름을 염두에 둘 때 100%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감정인 겁니다.
다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보니까,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겁니다.
아담이 이루어 놓은 게 하나도 없어도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 마음으로, 육체를 통해 다른 대상들을 2차적으로 만났을 때, 마음의 상태는 감사인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마음의 연장이고 확장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기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기쁨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백설의 마음, 직장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생각도, 부모도 자식도 아니야,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딱 만나서, 에덴 그 기쁨의 상태가 생기고, 기쁨의 상태가 된 다음에, 문을 열고 딱 기도가 끝나고 나가 봤더니, 아내가 보여요? 그러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 감사, 자식이 보여요?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감사, 직장에 가요? 뭐 별 볼일 없는 직장이거나 아주 훌륭한 대기업이거나 감사.
감사가 삶을 관통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래사람 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육체로 만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멋지지요? 이 본래사람의 모습이.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생기는 이 기쁨이 만약에 필연적인 거라면, 그러면 사람이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마치 로봇에게 명령을 주는 것 같은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격이 아니잖아요? 인격체가 아닌데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인격성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쁜 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으로 만들어 두신 겁니다.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을 가려면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려면, 선택적으로 다른 길을 가지 않고, 내 백설 같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조합을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만, 마귀가 와가지고 다른 길이 더 좋다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드디어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본래사람에 있어서 나타나던 조합의 방식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조합방식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게 됩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조합을 이루지 않고 육체와 조합을 이루어 버립니다.
육체에 꽁꽁 묶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타락 이후의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옛사람이면서 동시에 현재사람인 거지요.
현재사람이, 그냥 마음과 육체가 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두 단계의 변태적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두 단계의 변태적 삶.
변태가 뭡니까? 여러분.
본래의 형태가 변해서 달라진 게 변태입니다.
본래사람이 아닌 거니까 변태지요, 변태.
정상이 아닌 상태로 달라진 것, 이게 변태입니다.
근데 두 단계의 변태의 상황을 삶에서 연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변태의 두 단계가 삶의 내용이 됐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변태인가.
본래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생기면 그게 인격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관계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비어 놓게 만드셨습니다, 비어진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지면서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육체와 조합을 이루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은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고, 하나님과의 조합은 깨어졌고, 육체와 연합을 하니까 그 빈 마음에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것들을 집어넣음으로써 기쁘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게 변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이 있어야 만족하고 기쁘다고 생각하고 믿고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변태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돈은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으로 끌어들여서, 돈 때문에 만족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인 좋아하잖아요? 애인으로 더불어 만족하려 그러면 이게 변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만족하려 그러잖아요? 그게 변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돈, 남자와 여자, 결혼, 그리고 남자여자의 성관계 문제, 오늘 음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그러니까, 그게 변태라는 거예요.
꼭 사람을 두들겨 패면서 쾌감을 느끼는 새디즘만 변태가 아니고, 정말 대단하게 얻어터지면서 쾌락을 느끼는 그런 매조키즘만 변태가 아니라, 돈 좋아하는 게 변태라니까요.
원래 돈은 좋아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일류대학 좋아하는 게 변태라니까요, 그건 좋아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하게 하셔서 일류대학 들어가면, 가볍게 스쳐지나가는 마음으로 일류대학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거고, 공부 못해서 삼류대학 들어가면, 삼류대학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이루어 가면 되는 거지, 일류대학을 좋아하고 삼류대학을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 삼류대학 싫어하는 것도 변태고, 일류대학 좋아하는 것도 변태라는 거예요.

이런 변태에서, 두 번째 단계의 변태가 나타납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에 기쁨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이 하와를 만나게 해주시면, 하나님 때문에 기쁜 기쁨이 감사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부분에 다 나오는 얘기지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합이 바뀌어 가지고, 마음이 영이신 하나님과 조합을 하지 않고, 육체와 조합을 하게 되면서, 기쁨은 차 있고 만나는 것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것마다 위에 찰찰 넘치는 것으로서 감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옷 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3년 만에 옷 한 벌 사면, 이건 가뭄에 주전자로 물 붓기야. 도대체 이게 샀다는 느낌이 없어요, 계속 모자라.
그러나 옷이 옷장 안에 가득한 사람이 옷 한 벌 사면 찰랑찰랑 넘쳐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경우에는, 육체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없어도 기쁜데도 주어지는 거니까 감사의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조합이 깨어지고 육체와 조합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텅 비어 가지고는, 여자를 보면 그 여자를 통해서 어떡하든지 내 마음이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원하는 거 자체가 변태이고, 두 번째 변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자를 아무리 사귀어 가지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결혼을 시킨 다음에, 그 여자로 만족을 해 보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되거든.
만족하려고 했던 게 변태인데, 이게 안 되니까 나타나는 변태가 여자를 두들겨 패요, 또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줍니다.
이게 다 두 번째 변태라는 겁니다.
다른 여자하고 만나면 다른 남자하고 만나면 나아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변태라는 겁니다.

돈!, 돈을 원하는 거 자체가 첫 번째 단계의 변태고,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슬쩍 거짓말까지 하면서, 횡령, 배임 도둑질, 사기 이게 다~ 변태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새디즘만 변태가 아닙니다, 메조키즘만 변태가 아닙니다. 이게 다 변태에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가 다 변태인 거죠.
그 변태가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무슨 사욕과 탐심,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분한 마음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원래 조합이 제대로 됐었다고 그러면, 이런 분한 마음 같은 게 있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얘기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걸 보면, 하아! 전 아직도 옛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입에 담아서 부끄러운 말,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 이건 뭐 입에 달다시피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다에요.
이게 다 변태현상인데, 이 조합이 깨져가지고 마음이 육체와 조합을 이루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변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고, 한마디로 새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본래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는, 본래사람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생활화되어야만 본래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새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건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에 탐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5절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얘기는, 마음과 육체의 조합을 깨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앞에 2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 하면서 육체를 벗어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조합을 깨라, 조합을 깨라.
이렇게 마음과 몸이 묶여 있는 게, 원래부터 그렇게 돼있는 절대적인 조합 상태가 아닙니다, 자꾸 전인적 전인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해들을 하는데, 전인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전인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묶여 있는 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죄악 된 선택의 결과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뀌어야 돼요, 깨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깨어져 나가서 새사람이 돼요.

본래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본래사람은 아담 이후에 아무도 없다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 인간으로서 본래의 그 인간되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사시다가,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아무도 본래사람은 될 수가 없지요.
본래사람의 상태로 가려면 우리는 십자가 장애인이 되어야지 겨우 본래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본래사람의 상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치 인공심장을 달고 다니는 것처럼,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본래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새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본래사람.

여러분, 지금 뭘 원하고 살고계세요?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말씀 전하고 있는 당신은 뭘 원하고 살고 있느냐?
우리, 더 이상 변태적으로 살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성공 같은 거, 이 세상의 형통,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차원에서,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것들, 일어나는 대상, 만나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게 탐심이거든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 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있어야 될 마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치우고 다른 걸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우상숭배이지요.
변태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상숭배가 얼마나 문란하고 지저분하고 그 분위기가 음산했습니까?
근데 내가 마음에 돈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바알신전에서 온갖 문란함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돈을 원하는 게.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오래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하여간 육체 때문에 소원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소원하는 것은, 옛날 바알숭배와 똑같은 우상숭배인데, 그게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고, 탐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걸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아주 음산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건강해서 오래 살겠다는 게 아주 음산한 겁니다, 음산한 변태입니다.
우리 더 이상,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더 이상 변태적으로 살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내일,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우리가 되어야 될 그 새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보고, 진정한 복지를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직장에서의 성공 같은 것, 어떻게 그런 걸 원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원해야만 될 것들이 원해질 때 변태라 하니, 진정한 새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권고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계획되어진 새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